

내달 광한루원 상설공연 '시작'

남원시립국악단, 3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
전통소리청·민속악
퓨전국악 등 공연 다채



남원시립국악단은 6월 3일부터 7월 22일 까지 올 상반기 광한루원 상설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광한루원 상설공연.

남원시립국악단은 6월 3일부터 7월 22일 까지 올 상반기 광한루원 상설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통국악공연으로 펼쳐지는 광한루원 전통소리청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완월정 누각 위에서 진행된다. 야간에 펼쳐지는 광한루의 밤풍경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민속악, 퓨전국악 등 다양한 국악공연을 선사한다. 이 상설공연은 광한루원 입장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남원시립국악단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관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객석 띄어 앉기,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 등 공연 관람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또한 2020 한옥자원활용 아간상설공연 남원창극 '시르렁 실경 톱질이야'가 개막공연을 7월 4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9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펼쳐지며, 7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달간

은 금요일 추가공연도 예정돼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침체된 사회분위기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관객 누구나 50%를 할인하는 '착한할인'을 진행한다.

관소리 흥부가를 관객과 적극적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이번 공연은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익살과 해학을 살렸으며 박이 터질 때마다 남원시립국악단의 화려하고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여기에 라이브 민속악 반주를 더해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전망이다.

한편 남원시립국악단은 국내 대표 국악도시 '남원'의 이미지 구축과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민속악, 퓨전국악, 창극 등 다채로운 국악공연과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등 국악전승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 선정

배우 김규리·이승준



김규리

이승준

이준동 집행위원장은 "전 세계 영화인과 관객들에게 영화제 개최를 알리기 위해 개막식 온라인 생중계를 준비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화를 매개로 하는 축제로서의 영화제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사회자로 배우 김규리와 이승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배우는 오는 28일 오후 8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는 개막식 사회를 맡는다.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1999)로 스크린에 데뷔한 김규리는 이후 '허리인생'과 '미인도', '화장' 등 다양한 작품에서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이승준도 영화 '명량'과 '탑정 : 더 비기닝', '사자' 뿐 아니라 드라마 '태양의 후예', '미스터 션샤인', '그 남자의 기억법'까지 플랫폼을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다.

올해 개막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승수 조직위원장과 조직위 관계자, 전주시청 관계자, 심사위원, 경쟁작 감독 등 약 90여명만 참여한다.

개막식에 참석하는 게스트들의 소규모 레드 카펫과 포토월 행사, 그리고 식순에 준한 개막선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막식 전 과정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영화 관계자와 관객들 앞에 공개된다.

한편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29일부터 특정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영화를 둘러싼 담론을 들여다보는 '영특한 클래스', 감독과 출연자들이 본인의 작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전주대담', 다양한 감독과 배우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주톡톡' 등 프로그램 이벤트도 유튜브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 생중계로 선보인다.

프로그램 이벤트의 온라인 생중계 일정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계정에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기 위해 개막식 온라인 생중계를 준비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화를 매개로 하는 축제로서의 영화제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신소설 '옥중화' 알기 쉽게 풀이

전주대 인문학플러스 연구단, 연구총서 '옥중화 주해' 발간
작가 이해조가 '춘향전' 모태 매일신보에 48회 걸쳐 연재



전주대 인문학플러스 연구단(이하 HK+연구단)은 여덟 번째 연구총서 '옥중화 주해'를 발간했다.

'옥중화 주해'는 신소설 작가로 잘 알려진 이해조(1869~1927)가 매일신보에 48회에 걸쳐 연재한 작품 '옥중화'를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다.

'옥중화(獄中花)'는 '감옥 속의 꽃'이라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정절을 굳게 지켰던 춘향과 그녀가 일편단심 기다렸던 몽룡의 이야기를 그린 고전소설 '춘향전'을 모태로 한 신소설이다.

'옥중화'는 그 자체로도 판소리계 소설의 변화 양상과 20세기 초엽 활자본 소설의 출판 판도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로써 중요한 가치를 지녔는데, '춘향가강연'이라는 부제처럼 노래로 불리던 춘향가를 활자로 옮겨적어 소리를 근대적 활자로 정착시켰으며, 그 이후 다수의 춘향전 이본(異本)의 출판을 이끌었다. 이에 '옥중화 주해'에서는 이해조의 작품 세

계뿐만 아니라 당시 판소리계 소설과 춘향전 이본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옥중화'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현대문에 주해를 달아 상세히 정리했다.

전주대 HK+연구단 관계자는 "우리 연구단은 다양한 고전과 유교문화 연구를 통해 '유교문화의 탈영토화,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 공동체'를 연구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총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공동체를 위해 인문학적 토대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립합창단 공연 온라인 제공

익산시립예술단의 고품격 공연을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다중 이용 실내시설의 운영 중단이 지속됨에 따라 문화생활에 목 마른 시민들을 위해 시립합창단의 공연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익산예술의전당은 합창단의 70회째 맞는 정기 공연을 '우리의 노래,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사전 준비해 6월 4일부터 금강 방송을 통해 7일간, 익산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무기한 제공한다.

온라인 공연에는 연주 단원을 포함해 총 70여명의 인원이 투입되며 관중은 없어도 조명과 음향 무대 연출 등 공연에 필요한 모든 요소는 갖추어 현장감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Heal the world', '하나되어'와 같이 시민들이 즐겨 듣는 곡을 선정, 시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을 온라인으로 선보인다.

이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큰 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창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시민 분들의 문화갈증해소를 위해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코로나19가 일상의 많은 것을 바꾸고 단절시켰지만 계속해서 희망과 화합을 노래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식 기자

6월 가볼만한 곳 '고창 책마을 해리'

관광공사 추천... '폐교의 재탄생&추억의 학교 여행' 주제

고창 책마을 해리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6월의 가볼 만한 곳에 선정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폐교의 재탄생&추억의 학교 여행'이라는 테마로 6월 '추천 가볼 만한 곳'에 고창군 해리 책마을 등 전국 6곳을 선정했다.

관광공사는 "폐교는 미술관, 박물관, 복합 문화공간으로 바뀌기도 하고, 옛 학교의 감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도 거듭나 여행자를 즐겁게 한다"며 "이런 기억을 소환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학교로 여행을 떠나보자"고 추천했다.

고창군 해리면 월봉마을에 위치한 '책마을 해리'는 종이와 활자의 감성이 살아있는 곳이다. 이대건 총장은 도축장이 될 뻔한 폐교를 2006년 인수해 누구나 책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변신시켰다.

시인학교, 민화학교, 출판캠프 같은 프



그램을 통해 지금껏 선보인 책이 100여 권에 달한다. 동네 아집과 할매부터 각급 학교 학생과 교사까지 작가층도 다양하다. 지난해 봄에는 지역 출판의 미래를 모색하는 '2019 고창 한국지역도서전'이 전라도 지역을 대표해 이곳에서 열리기도 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주변에 둘러싼 만한 곳으로 상하농원, 선운사, 고창읍성을 꼽았다. 고창군과 매일유업이 만든 상하농원은 드넓은 목장에 쫓소와 양, 염소가 뛰놀고, 햇살과 바람 아래 로즈마리, 라벤더, 페퍼민트 등 각종 허브가 싱그럽다.

고창군청 군정홍보팀 고미숙 팀장은 "인문학도시, 역사문화관광도시 고창을 찾아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마음을 치유하고 즐거운 문화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청 군정홍보팀 고미숙 팀장은 "인문학도시, 역사문화관광도시 고창을 찾아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마음을 치유하고 즐거운 문화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